

##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 상표개발 열기 확산

특허청에 따르면 2002 월드컵 개최를 1년 8개월여 앞두고 월드컵 개최 도시로 결정된 서울, 부산 등 10개 도시마다 상표의 출원경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도시는 각기 고유한 이미지와 월드컵을 연계한 상표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상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가장 많이 한 도시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이 1976년에 축조한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수원성이 일제때 개칭된 것이어서 지난 96년에 옛이름인 화성으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수원시는 월드컵개최를 계기로 "HWASONG"이라는 문자 및 도형 상표를 개발, 출원하였으며, 88올림픽때의 호돌이처럼 "화성이"를 상징하는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출원하였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의 인화단결과 화성 건축물을 상징하는 도형상표, 봉화대 위에서 불꽃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화성이, 월드컵 축구공을 힘차게 슛팅하는 화성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를 의미하는 캐릭터상표 등 모두 79건을 출원해 놓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의 상모를 돌리는 화성이 등을 "기념컵, 비누, 인삼캡슐, 선글라스, 망원경, 모자, T-셔츠" 등 다양한 지정상품에 적용하고 이미 4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표의 개발을 위하여 수원시는 산업디자인 진흥원에 약 8천6백여 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수원시는 월드컵 대회 개최를 계기로 이와같은

상표 및 캐릭터를 활용하여 수익성 높은 문화관광 산업으로 연계하여 수원시의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관련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세입도 크게 늘려 나간다는 야심찬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고유 캐릭터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업체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거나, 직접 수익 사업을 하여 자치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는 다른 도시들도 수원시의 상표개발 노력을 거울삼아 상표 및 캐릭터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2002 월드컵 개최도시 상표출원 현황

※업무표장등은 제외

순위	지방자치단체	상표출원건수	대표적상표명
1	수원시	79건	화성(HWASONG)이 등
2	부산광역시	75건	OSOBOSO(오소보소), Teztoc, 평화지킴이 등
3	서울특별시	45건	왕범이(WANGBOMI), 왕범이도형 등
4	대구광역시	22건	CHIMERIC, 첨단도시, 갯방구 등
5	인천광역시	5건	터줏골
6	서귀포시	4건	제주비바리갈옷 등
7	전주시	2건	전주비빔밥
8	광주광역시	1건	
9	대전광역시	0	
9	울산광역시	0	



## 상표도 컬러化 시대

'99년 8월말 현재 색채상표 출원건수는 5,555건으로 '97년에 비해 39.1%, '98년에 비하여는 150.6%나 크게 증가하여 '96. 1. 1 색채상표도입이래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 색채(COLOR)가 상표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에 따르면 '99년 8월말 현재 색채상표 총 출원건수는 5,555건으로 '96년 1,909건에 비해 191.0%, '97년 3,993건에 비해 39.1%, '98년 2,217건에 비해 150.6%씩 각각 크게 증가하여 색채상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상표 출원건수에서 색채상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96년에 2.2%에서 '99년 8월말 현재 10.2%로 8% 「포인트」 증가하여 구조면에서도 색채상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금년말에 색채상표의 총 출원건수는 1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같이 색채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자, 도형과 함께 색채가 상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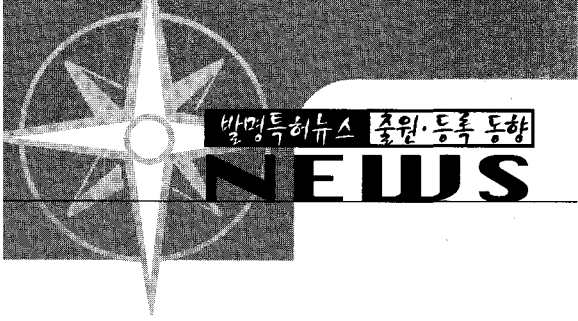
○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질과 함께 상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상표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 최근 색채상표 출원의 대폭 증가는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연도별 상표 및 색채상표 출원건수현황

	상표출원건수		색채상표출원건수		
	상표출원건수	색채상표점유율(%)	출원건수(%)	'99. 8 총건수	연도별 총건수(%)
'96	85,062	2.2	1,909	-	191.0
'97	87,065	4.6	3,993	109.2	39.1
'98	74,163	3.0	2,217	-44.5	150.6
'99.8월말	54,590	10.2	5,555	150.6	-
계			13,674		(255건, 1.9%)

※( )내는 '99년 8월말 현재 색채상표 등록건수 및 상표 총출원건수에 대한 등록건수 비율임.



# 국내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의 추진과 특허동향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위성휴대통신인 이리듐(IRIDIUM) 서비스가 시작되어 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개인이동통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위성휴대통신 사업전망이 불투명 해짐에 따라 '97년 이후 위성통신 관련 특허출원이 저조함.

○그러나 위성휴대통신 사업은 장기적으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과 통합되어 미래 핵심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향후 국내 연구기관의 통신위성 개발과 제조업체의 위성휴대단말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위성통신 관련분야의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허청에서는 특허분석 정보자료의 제공 등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기로 하였음.

○위성을 이용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위성휴대통신사업이 최근 최대사업자인 이리듐(IRIDIUM)과 ICO가 당초사업계획의 추진에 차질을 빚어 지난 8월 미국의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시장규모, 통신기술 발

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경쟁적인 위성통신사업의 참여보다는 위성통신단말기 및 부품공급 등에 기술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특허청에 위성통신 관련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 '94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6년에는 112건이 특허출원 되었으나 '97년 이후부터는 위성휴대통신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출원이 급감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이 부문의 출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항공우주연구소 등의 통신위성 개발과 국내 제조업체의 위성휴대통신용 단말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위성통신분야에 대한 주요 내·외국인의 특허출원을 보면,

- 미국의 모토롤라는 시스템, 단말기, 서비스등 분야에 걸쳐 출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스타는 위성제어 및 운용에서 일본의 교세라는 단말기 부문에서 출원하고 있으며,
- 국내기업들은 CDMA/PCS를 기반으로 한 단말기 및 저잡음 증폭기(LNA) 등 부품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 출원하고 있음.



○특허청에서는 국내 위성휴대통신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허분석 정보자료를 관련업계에 제공키로 하고,

- 이의 한 방안으로 이동통신 관련분야의 특허 현황을 분석·정리한 특허맵(특허지도)을 작성·보급키로 하고 올해에는 '이동전화기' 그리고 2000년에는 '위성통신용 송수신 안테나'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키로 하였으며,

- 또한 관련 업계와는 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선진국 기술동향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응해 가기로 하였음.

**위성휴대통신의 국내 시장전망**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가입자수(천명)		0	3	11	24	39
단말기시장(천\$)		346	2,572	7,737	13,556	17,579
서비스시장(천\$)		2,239	19,410	56,654	79,541	92,259

**위성통신 관련 특허 출원동향**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출원건수	11건	32건	45건	112건	79건	33건

**위성휴대통신분야 주요 내·외국인 출원동향 (단위:건)**

외국출원인					국내출원인				
모토라	글로벌스타	NEC	에릭슨	교세라	LG정보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대우통신	ETRI
10	9	8	5	3	13	9	8	6	5

## 반도체 특허심사 빨라진다

- 반도체 특허의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 '97년 말 평균 42개월이 소요되던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이 '99년 8월말 현재 29.3개월로 단축되었고, 금년 말에는 평균 27개월까지 단축될 전망.
- 특허청에서는 2000년 말 24개월을 목표로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
- 최근 5년간 반도체관련 특허 출원건수가 연평균 1,100건에 이르고 있으나 심사건수는 연평균 약 5,000건에 불과, 결국 미처리 건수의 누적으로 97년 말에는 평균 42개월이 지나서야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특허청에서는 '97년 하반기부터 박사심사관의 특별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분야 심사관수를 12명에서 33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시행하여, 98년 말에는 평균 심사기간을 33개월까지 줄였고, 금년 8월말에는 29.3개월로 단축, 최초로 심사기간이 20개월 대에 진입했다고 공개.
- 특허청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27개월, 내년 말에는 24개월까지 반도체 특허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반도체 업체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특허기술장터 등에서 특허권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함 **발특9910**